

# 이론서보다 더 나은 '현장교과서'

## — 포장업체 견학기

김은진/동국전문대 포장과 2학년

**견학**은 수업의 연장이라는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론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것, 새로운 곳에 가보는 것으로 정말 가슴 설레이는 일이다.

지난 9월 5일, 아침 8시경에 우리는 모두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40여명이 채 안되는 인원이었으므로 삼삼오오로 나뉘어 간소하게 출발했다.

우리는 1시에 시작하는 포장관리사 수료식에 맞춰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도착하기 위해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전철로 갈아 탔다.

무사히 1시까지 아슬아슬하게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녀달에 걸쳐 매주 꼬박꼬박 제출해온 레포트,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 현장 실습으로 더 덥고 바쁘게 지냈던 여름 방학, 그 와중에도 우리는 관리사 레포트를 시간 안에 제출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이면 1시전까지 누런봉투를 들고 우체국으로 뛰어 다녔다.

그래서인지 파란 포장관리사증은 우리를 더욱 뿌듯하게 해주었다. 수료식 후에 우리는 정해진 숙소로 향했다. 아침부터 계속 긴장을 해서인지 몸이 노곤했다. 피곤하기도 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견학이 걱정이었다.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피곤으로 늦잠을 자진 않을까 하고 은근

히 걱정을 했었다. 다음날 아침 모두들 거뜰히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아침까지 챙겨먹고 여유있게 출발을 했다. 사실 견학을 와서 아침을 챙겨먹을 여유는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말이다. 시작은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있었다.

첫 코스는 테트라팩 공장이었다. 이전에 위치한 이곳은 덴마크에 본사가 있는 외국인 회사라고 그곳 직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다. 매우 깨끗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마치 가정집 같은 인상을 주는 회사였다. 테트라팩의 역사, 제품 생산기술, 제조공정 등을 배웠다. 설명해 주신 분들이 모두 회사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오후에는 두산제관과 동양맥주를 방문했다.

제관 생산공정은 오래 전부터 한번쯤 꼭 보고 싶었던 포장분야였다. 거의 매일 보고 마시는 캔 음료ja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은 것은 포장과 학생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모두 노란 귀마개를 받아들고 기계나 기동같은 것에 부딪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저기 쿵광거리는 소리, 세척기에서 나오는 열기, 빠르게 돌아가며 벌써 반쯤은 만들어진 캔들을 정신없이 보다보니 눈 앞에 흰색, 빨간색의 캔들

이 높게 쌓여져 있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견학 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해주셨다. 인사를 드리고 우리는 다음 견학장소인 동양맥주로 향했다. 동양맥주에 도착하자 빨간 제복의 안내원 한 분이 맞아 주셨다.

이곳에는 정해진 견학코스가 있었다. 그 견학 통로를 따라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포장되어지는 공정을 볼 수 있었다. 견학코스 끝으로 시음회장에서 찬 맥주를 조금 맛본 뒤 저녁 식사를 하러 서둘러 떠났다.

그날은 포장협회 회장님께서 포장과 학생들을 위해서 저녁을 약속하신 날이었다. 우리들은 약속장소인 인터콘티넨탈 호텔로 갔다. 학생신분으로 호텔에 갈 일이 거의 없던 우리들은 기대감에 차 있었다. 웃고 떠들며 들어서는데 호텔 직원분들이 한번씩은 다 돌아 보는 것이었다. 견학 갈때 들고 다닌 가방보따리며 차림새가 호텔 분위기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 그도 그럴 것이었다.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시선을 받는 것도 재미있었다. 식사에는 이대성 부회장이 나오셨다.

'포장정보' 기자분들도 오시고 전사회다 포장학회다 해서 몇번 될 기회가 있었던 분들이라서 그래도 어렵긴 했지만 어색하진 않았다. 맛있는 식사에 오늘 견학이 무사히 끝났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숙소로 돌아갔다.

7일 아침, 어제였다라면 벌써 일어났을 시간에 우리는 모두 자고 있었고 겨우 일어나서도 느릿느릿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나 같이 지친 모습들이었다.

시간에 맞춰가기 위해 아침도 거르고 출발장소에 모였다. 그런데 차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다. 연락을 해보니 고장이 나서 늦어진다는 것이었다. 시간 맞춰서 오느라 아침도 잠도 접어두고 왔는데...

그건 그렇다치고 견학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았다. 정말 큰일이었다.

차는 한 시간 남짓해서야 나타났고 늦어서 죄송스런 맘으로 오늘의 첫 견학지인 유동기업을 방문했다. 오전 중에 방문하기로 했던 것이 늦어져서 점심시간에 맞춰가게 되었다. 먼저 식사를 하고 견학을 했다.

유동기업은 지관, 연포장, 다층 블로운 필름, 사출 캡 등 여러 종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 견학에서 보았던 다른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 종류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다. 특히 손이 많이 간다는 지관 생산 라인 외에는 거의가 전자동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늦어진 일정 탓으로 생산 공정을 둘러 보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다음 견학할 곳인 태림포장으로 향했다.

올해 열린 KOEX 전시장에서 태림포장과 그외 골판지회사 전시를 봤



▲ 견학기간 중 한국포장협회 한용교 회장이 마련한 만찬에서 같은 과 친구들과 기념촬영 (오른쪽이 글쓴이)

던 적이 있어서 왠지 친근감이 들었다. 태림 포장은 골판지, 골판지 상자 제조 업체로서 그 규모가 동양 최대라고 한다.

마지막 일정인 태림포장 견학에서는 이제까지의 피로에 모두 지쳐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몇몇 친구들은 활기에 차 있었다.

올해 여름 방학동안의 실습 때 골판지 생산업체에 갔었던 친구들이었다. 정말 신이 나서 골판지 제조 공정에 대해 설명까지 해 주었다. 덕분에 피곤도 느끼지 못하고 마지막 일정까지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가기 위해 기차에 올랐다.

이틀 전 올라 올때의 흥분과 기대

가 견학을 마치고 내려 가는 지금은 시원 썩성한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앞으로 포장산업현장에선 모두들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지 .....